

국별 리포트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447천km ²	G D P	390 억 달러
인구	28.50 백만명	1 인 당 G D P	1,367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Sum
대외정책	대서방 우호관계 회복 중,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관계 유지	환 율(달 러 당)	1,587.00

-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6조 m³),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 금(매장량 세계 6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여 양호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되었고, 2009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친정부 정당들만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당분간 공고한 1인 통치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추진과 맞물려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9.5	9.0	8.1	8.5	8.0
재정수지/GDP	2.7	1.5	0.2	0.3	-0.2
소비자물가상승률	12.3	12.7	14.1	9.4	13.1

자료: IMF, EIU

□ 8%대의 고도경제 성장세 유지

- 2010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인 금, 면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의 8.1%보다 다소 높은 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2011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유지, 해외근로자 송금 수입, 정부의 실질임금 상승 및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에 따라 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제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전망은 2012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성장세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한 활발한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세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이후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율은 28%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2010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 노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4%에 머물렀음.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경제성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 13.1%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소폭 적자 전환

- 2010년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 세제 개편 등으로 0.3%의 흑자를 기록했음.
- 2011년에는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지속, 국방 및 치안관련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0.2% 수준의 소폭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 2011년부터 발효된 개인소득세의 1% 인하 조치 등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구조 · 정책

□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금, 면화 등 1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취약한 구조임. 2010년 기준 금과 면화는 각각 총수출의 19%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수출은 총수출의 약 20~25%에 달함.
- 2010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러시아(23.6%), 중국(20.3%), 터키(13.5%) 순이며, 수입대상국은 러시아(21.1%), 한국(18.2%), 중국(14.9%) 등임.

-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수출시장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아 러시아의 경기변동에 따라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6조 입방미터, 세계 21위),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와 금(매장량 세계 6위) 등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2011년 2010년 수입량인 155억 입방미터에 4.25억 입방미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으며, 가격조건은 1,000입방미터당 300달러 수준임.
 - 인접국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는 2011년 중 각각 1,000입방미터당 223달러과 228달러에 2억 입방미터와 1.8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음.
-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아 양질의 저임금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수출시장을 모두 접하고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으로 외자유치 확대 계획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 12월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해 473억 달러 규모의 총 516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유망 분야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은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 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 구조는 2010년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까지 확대되고 관련 수출 비중도 51%에서 7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원유,가스 가공 및 개발 분야 외에 투자유치 유망 분야는 기계 및 자동차, 의약 및 바이오, 화학, 식품 가공, 전기전자 산업 등임.
- 이 프로그램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의 68% 가량을 외국인투자 및 국제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가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CIS 국가 중 투자유입이 가장 부진한 국가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04년 이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 10억 달러('07), 14억 달러('08), 25억 달러('09), 28억 달러('10)
- 2011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보다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시 면세혜택을 투자금액이 최소 미화 30만 달러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면세기간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 그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제공되는 단일 사회보장세(Single Social Payment) 면세기간을 기존 2011년에서 2014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했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출 증가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의 상품수출은 2010년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라 12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증가했음.
- 2011년에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13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 2010년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의 가격 상승과 러시아 경기회복세에 따른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4%(15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 2011년에는 천연가스, 면화 가격 상승세 지속, 자동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7.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숨화 가치 하락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가치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키르기즈 유희사태 발생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2010년 말 기준 전년대비 8.5% 하락한 1,638숨/미달러를 기록했음. 2011년 말 기준 숨화 가치는 전년대비 8.5% 하락한 1,777숨/미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가치 절상을 권고했으나 통화당국은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숄화의 가치 하락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양호한 수준 유지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외채규모는 2007~08년에 39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다소 증가했음. 그러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15.8%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음.
- 2011년 총외채규모는 74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다소 상승한 17.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경제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하락세 시현

- 2010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수출 증가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5%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이보다 하락한 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4,326	4,053	3,580	5,783	6,983
경 상 수 지 / GDP	8.0	9.0	3.1	4.0	7.1
상 품 수 지	1,691	1,021	1,712	3,950	4,910
수 출	8,029	10,298	10,735	12,010	13,800
수 입	6,338	9,277	9,023	8,060	8,890
외 환 보 유 액	7,413	10,150	9,000	9,800	11,000
총 외 채 잔 액	3,912	3,989	5,267	5,965	7,408
총 외 채 잔 액 / GDP	17.6	13.9	16.1	15.8	17.8
D . S . R .	7.0	5.2	5.1	5.0	4.1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카리모프 장기집권 체제 지속

- 1991년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7년 임기의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해 당분간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2월 135석을 두고 실시된 총선에서도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53석,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Milliy Tiklanish) 31석 등 친정부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통령이 73세의 고령이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임. 현재 대통령이 현 임기 종료 후 연임에 도전할지, 아니면 향후 특정 시점에 후계자를 지명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 2011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대통령 임명직)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후계구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사회 및 소요사태

□ 강력한 통치체제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잠재

-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요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요직을 모두 그의 지지자들로 선임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해 그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우즈베키스탄은 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을 증가하며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약 25%는 극빈층에 속하는 등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발생위험이 상존

- 지난 20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 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 움직임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필요시 무력 동원도 불사할 것으로 보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세력, 소수민족, 종교단체 등에 대한 비인권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어 폭탄테러 등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대 EU 관계 진전은 더딘 편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던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추진에 따른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4월 3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행 비군수 물자의 우즈베키스탄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음.

- 특히 2010년 12월에 이어 2011년 10월에도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양국 관계는 크게 진전되고 있음. 2011년 9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2011~14년 농업 발전 프로그램(1,210만 달러 규모)을 포함하여 총 3,300만 달러를 보건, 농업 및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EU와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개선이 더딘 상황임. EU는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모두 해제했으나 여전히 동국의 아동노동 착취 등 인권 현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음. 2011년 10월에도 EU 의회는 아동노동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즈베키스탄 면화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거부했음.

□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

-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총 1,833km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개통하는 등 꾸준한 자원외교의 결실을 보고 있음. 동 가스관 개통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은 러시아 이외의 주요 가스 수출선을 확보해 대 러시아 협상력이 강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도입해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008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에서 탈퇴하는 등 러시아와 다소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 지속

- 2010년 6월에 발생한 키르기즈 유혈 사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여전히 국경 획정 분쟁과 민족 분규가 지속되고 있어 키르기즈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국과 수도 및 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세력의 활동반경이 우즈베키스탄 국내로까지 확대될 위험도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 평가

□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유지

-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 외채 상환 부담 경감,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출상품 가격 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됨.
- OECD는 2008년에 평가한 6등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2.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과의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우즈베키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과거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10년 기준 GDP 대비 16% 수준의 총외채잔액은 우즈베키스탄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며, 단기외채 비중도 4.2% 수준으로 낮은 편임.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1.4억 달러, 중장기 7.5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40만 달러(0.3%) 및 중장기 20만 달러(0.03%)가 연체 중으로 연체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며, 회수불능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122,592	1,149,783	1,438,644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
수 입	262,934	47,410	21,979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등
합 계	1,385,526	1,197,193	1,460,623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1992/01/29 (북한과의 수교 : 1992/02/07)

주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92), 항공협정, 문화협정(이상 '94),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3), 사회보장협정('05),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09)

□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가세 유지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했음. 한편, 수입은 2008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2,198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11. 1.~ 9간 양국 교역량: 12.6억 달러(수출 1억 2,473만 달러, 수입 1,614만 달러)

- 자동차부품 및 원동기, 펌프 등 투자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품 및 원부자재 수출이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천연섬유사, 면직물 및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음.

□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 추세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 수교 이래 1998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로 투자가 정체된 이후 2010년 말 누적 기준으로 175건, 5억 3,997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1년 6월 말 누계 기준으로는 181건, 5억 5,424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중단 등 투자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19건, 3,913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년에 비해 투자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6월 투자실적은 6건, 1,427만 달러를 기록했음.
- 업종별로 보면 2010년 말 누적 기준으로 제조업이 3억 6,306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451만 달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686만 달러 순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및 섬유업체가 대부분임.

V.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의 수출 호조 및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국내투자 확대, 외환보유액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등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다만, 2011년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국방 및 치안관련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소폭 적자로 악화됨.
-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체제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는 가스 수출 등을 매개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연동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또 부진한 경제개혁 성과, 더딘 민주화 과정, 고령의 카리모프 후계구도의 불확실성과 극빈층의 내재된 불만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 johuh@koreaexim.go.kr